



언제나 곁에 있는 풍부함 Abundance always at hand

다이아나 데이비스 버틀러 (Diana Davis Butler)

크리스천 사이언스 온 라인판(The Christian Science Journal on line)

2011년 12월 26일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공부하면서, 일상 생활에의 새롭고 더 깊은 적용을 발견해오고 있다. 나는 오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 (마태복음 14 장 15~21 절, 마가복음 6 장 34~44 절)를 좋아한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그리했겠지만 나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다.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군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그리고 그가 모든 상황에서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능력을 실증하셨을 때 그들이 경험했을 놀라움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두 가지의 실용적인 영적 아이디어가 마음에 떠올랐다.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제자들은 그들에게 겨우 다섯 덩이의 빵과 생선 두 마리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진 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 물론, 다섯과 둘을 합한 일곱은 성경 곳곳에서 완벽함과 완성도를 의미하는 숫자이지만, 나는 마태복음에서 그 숫자가 나뉜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혹시 “다섯 덩이의 빵”이 다섯 가지의 물리적 감각을 나타내고, “두 마리의 생선”은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둘을 합하면, 제자들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그때까지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만한, 비록 필멸적이지만 완전한, 사람의 개념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의 아이디어인 영적인 사람, 즉 “**하나님** 창조의 ‘남자와 여자’”(과학과 건강, 249 쪽)를 보셨다. 그리고 “그것(본질에 대한 제한된 관점)을 이리 가져오라”는 부드러운 말씀에 이어, 그는 사람에게 대한 물질적 의미를 진리인 그리스도에게 가져가, 물리적 감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초월한 것으로 고양하셨고, 정확하셨으며, 확장시켰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린 군중을 앓히라 지시하셨다. 이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차분한 받아드림과 기대의 자세가 아닐까? 그들의 역할은 신성의 **사랑**이 그토록 은혜롭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늘(영적 실재성)을 올려다보시고, 축복(인지하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자신의 참된 지식을 떼어주셨다(드리내셨다 즉 설명하셨다). 그 결과는 모두를 위한 양식(음식의 형태로 현실화 된)이었고, 시작할 때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남은, 열두(내재된 완전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숫자) 개의 딱 찬 바구니였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인간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상존하는 영의 능력을 인지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일상적 도전에 접근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일곱 덩이의 빵과 “몇 마리”의 생선으로 4 천 명을 먹이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마태복음 15 장 32~38 절, 마가복음 8 장 1~9 절 참조) 그는 다시 군중들을 앉도록, 즉 받을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셨고, 그리고는 가지고 계신 것을 “떼시어”, 모두를 먹이시고, 그들이 시작한 량보다 더 많이, 일곱 바구니 가득 거두셨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가 완전함과 완벽한 공급이 바로 곁에 있음을 인지함으로 시작하셨고, 상존하는 영에 의해 공급되는 축복을 수용하는 자세로 기대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그 결과 - 실증 - 는, 고갈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여전히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히 “모아”진, 넘치는 공급으로 인간의 의식에 현실화되었다.

상존하는 영이 가진 인간적 필요를 (물질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풍요롭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차분히 정돈하고, 선에 대한 수용하는 기대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함의 “바구니” 안에 공급된 모든 축복을 모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일상적 도전에 대응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씨앗은 그 자체 안에 있다. 오직 신성의 마음이 전부이고 모든 것을 증식시킨다. 마음이 증식자이며, 마음의 무한한 아이디어, 즉 사람과 우주가 그 결과이다.” 라고 한 메리 베이커 에디의 말(*과학과 건강*, 508 쪽)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나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다이아나 데이비스 벅틀러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며 캘리포니아주 프레스토 위의 시에라 언덕에 있는 코어스쿨에 거주한다.